

창립일 1967.9.17. | 제59권 17호, 2026.4.26.

\* 지난주 강단제목 : 하나님, 독생자, 그리스도 (출 3:14, 요 3:16)

(1부) 오전 8:30 · 인도 : 심한결 목사, 설교 : 정윤돈 목사

(2부) 오전 11:00 · 인도 : 박범서 목사, 설교 : 정윤돈 목사

- |                   |                                               |
|-------------------|-----------------------------------------------|
| ★ <b>입례송</b>      | 오르간                                           |
| ★ <b>예배의 부름</b>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24) |
| ★ <b>응답송</b>      | 찬양대                                           |
| ★ <b>예배선언</b>     |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
| ★ <b>신앙고백</b>     | 사도신경(새번역) / 다같이                               |
| ★ <b>경배의 찬양</b>   | 5장. 이 천지간 만물들아 / 다같이                          |
| ★ <b>교과용서의 말씀</b> | 설교자                                           |
| ★ <b>주기도</b>      | 635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주기도송) / 다같이                  |
| ★ <b>성서교독</b>     | 110. 선교주일 / 인도자와 회중                           |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께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임이여 (대상16:23-25)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요20:21)**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불지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28:19-20)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다같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행1:8)**

- |                 |                                                           |
|-----------------|-----------------------------------------------------------|
| 찬송              | 505장. 온 세상 위하여 / 다같이                                      |
| 중보의 기도          | (1부) 리종화 장로 (2부) 김현 장로                                    |
| 성경봉독            | 요엘 2:28(구약 1273쪽), 사도행전 2:16-17(신약 188쪽) / 인도자            |
| 찬양              | (1부) 주와 함께 걸어가기 / 시온찬양대 (영성)<br>(2부) 항상 기뻐하라 / 시온찬양대 (현장) |
| 말씀의 선포          | <b>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문제 끝 복음으로 여는 요엘-</b> / 설교자                 |
| 봉헌              |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 다같이                                    |
| 교회소식            | 설교자                                                       |
| ★ <b>결단의 찬송</b> | 새 힘을 얻으리라 / 다같이                                           |

오직 여호와께 양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능력을 더하시리

독수리가 날개 치며 하늘로 올라감 같도다 땅 끝까지 끝 날까지 주의 백성 불드시니

달려도 곤비치 않고 걸어도 피곤치 않네 오직 여호와께 양망하는 자

달려도 곤비치 않고 걸어도 피곤치 않네 오직 여호와께 양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

- |                  |        |
|------------------|--------|
| ★ <b>파송의 말씀</b>  | 설교자    |
| ★ <b>봉헌기도·축도</b> | 정윤돈 목사 |

다음 주 기도 : (1부) 김경희A 장로 (2부) 배승찬 장로

★ 표는 일어서서 · 경건한 예배를 위하여 휴대전화의 전원을 꺼 주시기 바랍니다.

## 주일부서예배

유치부	오전 11:00	인도, 설교 : 이현규 목사 · 장소 : 3층 제2랩넌트실
태영아부	오후 2:00	인도, 설교 : 심한결 목사 · 장소 : 5층 참사랑홀
어린이부	오후 2:00	인도, 설교 : 심한결 목사 · 장소 : 5층 참사랑홀
중고등부	오후 2:00	인도, 설교 : 심한결 목사 · 장소 : 5층 참사랑홀
대학청년부	오후 2:00	인도, 설교 : 심한결 목사 · 장소 : 5층 참사랑홀

\* 매월 마지막 주 주일은 어린이부, 중고등부, 대학청년부 연합으로 예배드립니다. (장소 : 5층 참사랑홀)

## 수요기도회

시간 : 오전 10:30 / 오후 7:30 · 장소 : 1층 비전홀

기도	(오전) 박인자 권사 (오후) 이정미 권사
인도, 설교	(오전) 심한결 목사 (오후) 박범서 목사

다음 주 기도 : (오전) 신혜선 권사 (오후) 임혜미 권사

## 금요심야기도회

시간 : 오후 8:00 · 장소 : 1층 비전홀

기관보고	장학위원회
설교	이현규 목사

다음 주 기관보고 : 헌당준비위원회

## 새벽기도회

월~토 새벽 5:30

(월) 심한결 목사	(화) 이현규 목사	(수) 이현규 목사
(목) 박범서 목사	(금) 박범서 목사	(토) 심한결 목사

2026 참사랑교회의 응답

참사랑교회

오직성경 오직복음 오직예수

(이사야 34:16, 디모데후서 3:16-17)

## 교회소식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매주 주일 오전 10시 20분부터 10시 40분까지 4층 당회실에서 새가족교육이 진행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안내위원에게 말씀해 주시면 친절히 신앙생활을 도와드리겠습니다.

### ■ 교회소식

- 오늘 오후 2시부터 5층 참사랑홀에서 램네티부서 연합예배를 드립니다. 연합예배 후 오후 3시부터 참사랑집중 전도신학원이 진행됩니다.
  - 1) 참석대상 : 구역장, 권찰, 중직자, 사역자, 교사.
  - 2) 시간 : 1강(3-4시), 2강(4-5시). 3) 장소 : 5층 참사랑홀.
- 봄철 대심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각 지역 전도인 및 구역장 여러분께서는 구역원들과 의논하셔서 심방 일정을 정하여 각 교구 담당교역자 또는 교역자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2026년 상반기 전교인전도캠프는 강남노회 전도캠프세미나에 참여합니다. 모든 현장에 다락방과 미션홀, 지교회화 회복되는 캠프가 되도록 기도하면서 일정을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일시 : 2026년 5월 25일(월, 대체공휴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 2) 장소 : 참사랑교회. 3) 강사 : 강상모 목사. 4) 회비 : 1만 원. 5) 주관 : 강남노회.
- 복음요절 압송과 구원의 길 그리기를 통해 300명집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1층과 5층 로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 예배시간과 헌금안내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주일오전예배 - 1부 : 오전 8시 30분, 2부 : 오전 11시. 장소 : 5, 6층 참사랑홀
  - 2) 수요일오전예배, 수요일오후예배, 금요일야기도회 / 1층 비전홀
  - 3) 매일 새벽기도회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며, 녹화하여 새벽 5시 30분에 전체 소통방에 올라갑니다.
  - 4) 주일 각 부서의 예배시간입니다.
    - (1) 오전 11:00~12:20 유치부 (2) 오후 2:00~3:20 태영아부
    - (3) 오후 2:00~3:20 어린이부, 중고등부 (4) 오후 3:30~4:50 대학청년부
    - (5) 매일 마지막 주일은 오후 2시부터 램네티부서 연합예배로 드립니다.
  - 5) 다락방 및 지교회 모임은 시간을 정해서서 줄이나 전화통화, 유튜브를 통해 라이브로 녹화를 하여 양육과 교제와 말씀포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6)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은 가능하면 토요일에 헌금을 아래의 계좌로 입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 입금하실 때 이름과 헌금명을 함께 기록해서 입금하시면 됩니다. (예금주 : 참사랑교회)
    - (예 : 000주정 / 반드시 한글기준 7글자 이내)
    - 일반헌금 : 신한은행 100-013-769840 - 주정, 십일조, 감사, 절기, 차량, 기타헌금 등
    - 헌당헌금 : 신한은행 100-022-072886 • 장학헌금 : 신한은행 100-033-576780
    - 선교헌금 : 신한은행 100-033-576822 • RUTC헌금 : 신한은행 100-035-010731
    - \* 헌당, 장학, 선교헌금, RUTC헌금을 제외한 헌금은 일반헌금 계좌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 ■ 기관 및 교우소식

- 교역자의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돈 담임목사 : 428 237화요제자훈련 - 덕평 RUTC, 430~51 홍풍아시아전도집회)
- 군과 해외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단은 주로 14면에 있습니다.)
- 교우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권사, 김원일 집사, 이영경 집사, 이순덕 권사, 박숙자 집사, 김춘례 권사)

### ■ 참사랑 RUTC소식 (정치, 경제, 문화, 보건, 복지, 과학, 예술, 체육, 예능, 교육, 군경, 공무원)

- 금요일시대를 준비하는 참사랑 RUTC 램네티의 활동신청을 받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내용을 보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및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전체카톡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서예교실 : 한 달에 1번(토요일) 10시, 2층 식당. (모집 중)
  - 2) 트라킹체조교실 : 당분간 운영중지. (담당 : 정수환 집사 010-5527-6067)
  - 3) 스키&스노보드 : 동계. (담당 : 박찬열 집사 010-8760-0756)
  - 4) 탁구교실 : 매주 토요일 11:50분, 2층 로비. (담당 : 최혜숙 권사 010-9430-9862)
  - 5) 수목캘리그래피 : 첫째, 셋째 토요일 19:00, 2층 식당. (담당 : 김순호 장로 010-8630-4414)
  - 6) 기타클래스 : 매주 토요일 14, 17, 19시, 4층 당회실. (담당 : 이명 장로 010-2222-7624)
  - 7) 축구&풋살 : 한 달에 1번. (담당 : 김승훈 집사 010-2098-3141)
  - 8) 트리니티찬양교실 : 첫째, 셋째 수요일 14:30분, 3층 제2램네티실. (담당 : 임에진 권사 010-6225-9661)
  - 9) 취미그림교실 : 첫째, 셋째 토요일 17:30, 2층 식당. (담당 : 조수영 집사 010-3777-8315)

## 교회소식

- 10) 복음영어를클래스 : 주일(성인) 19시, 토(RT) 3:30분, 1층 초등부실. (담당 : 주은경 권사 010-9542-8212)
- 11) 드림클래스 : 매주 토요일 6, 7시, 5층 참사랑홀, 8시 1층 비전홀. (담당 : 김승훈 집사 010-2098-3141)
- 12) 피아노&기초음악이론 : 개인별 레슨 진행. 4층 찬양대실. (담당 : 이석 집사 010-5067-1426)
- 13) WIO스마트팜 : 비정기적 열린 포럼 진행.
2. 연기, 연기, 영화, 방송, 뮤지컬 팀을 모집합니다. (담당 : 박범서 목사 010-6335-3719)
3. '서예교실에 참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문의 : 이현규 목사 010-9736-3556)
4. 피아노&기초음악이론 인원을 모집합니다. (문의 : 심한결 목사 010-8206-2024)
  - 1) 강사 : 이석 집사, 2) 레슨방법 : 주1회 1시간(개인레슨), 3) 레슨장소 및 시간 : 4층 찬양대실, 요일 협의.
  - 4) 레슨비(4주 기준, 1인당) : 피아노 10만원 / 기초이론 6만원, 5) 모집인원 마감 때까지.
5. 쿠키미팅 인원을 모집합니다. (문의 : 김순호 장로 010-8630-4414)
6. 성악 발성반 인원을 모집합니다. (문의 : 김희권 장로 010-2334-6713)
  - 1) 강사 : 김희권 장로, 2) 레슨장소 : 4층 찬양대실.
  - 3) 레슨방법 : ① 매주 화요일 오후 2~4시(회비는 참석할 때마다 1.5만원).
  - ②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오후 12시 30분(회비 : 월 6만원).
7. 자전거 타는 방법 교육 및 안전교육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 1) 대상 : 초, 중, 고교생, 2) 장소 : 올림픽공원(평화의 광장), 3) 기간 : 모집 후 결정.
  - 4) 교육기관 : "스포츠레저교육 사회적 협동조합" (대표 : 강인규)
8. 자격증 상담(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청소년지도사, 평생교육사, 생활체육지도사 등)을 원하시는 분은 연락하셔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하나원격평생교육원 (문의 : 최영경 팀장 010-6777-8692)

### ■ 혼련 및 집회소식 (해당하시는 분들이나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매주 토요일 산업선교(오전 9시), 전도화(오전 9시 40분), 핵심예배(오전 10시 30분)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본교회에서 매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1층 비전홀에서 핵심예배를 영상으로 함께 드립니다.)
2. 237화요제자훈련이 4월 28일(화) 덕평 RUTC에서 있습니다.
3. 홍콩아시아전도집회가 '인간의 땅대를 하나님의 절대땅대로(행1:1-8)'를 주제로, 4월 30일(목)부터 5월 1일(금)까지 홍콩 새생명선교교회에서 진행됩니다.
4. 제45회 전국 목사장로기도회가 '1천 땅대의 발판(마16:13-20)'을 주제로, 5월 4일(월) 오전 11시부터 임피뉴엘서울교회에서 있습니다.
5. 237새가족현장사역자훈련이 5월 5일(화) 덕평 RUTC에서 있습니다.

## 4월 행사 및 일정

구분	본교회 일정 / 세계복음화전도협회 일정
0주차	237화요제자훈련(3.31, 덕평 RUTC), 일본랩넛트대회(1~3, 나고야)
1주차	부활절예배, 성례전(5), 강남노회 정기(봄)노회(6) / 유럽전도집회 및 유럽랩넛트대회(7~9, 영국)
2주차	강남노회 교역자수련회(13~15)
3주차	세계사모수련회(21), 제29차 2026세계선교대회(22~26, 덕평 RUTC), 랩넛트데이(25)
4주차	랩넛트부서연합예배, 참사랑집중전도신학원(26) / 237화요제자훈련(28, 덕평 RUTC), 홍콩아시아전도집회(4.30~5.1)

## 5월 봉사위원 안내

구분	봉사위원
헌금위원	(위원장) 정세완 (위원) 김금남 라중화 신승훈 박희영 양경아 이정미 임소순 임혜연 박주는 이영경
성찬위원	(5층) 신승훈 라중화 김현 김경희A 배승찬 양경심 임근일 최철규 (6층) 이은숙 최신혜
안내위원	(위원장) 신승훈 (1층) 양경심 김경희A (5층) 최신혜 이은숙 유경선 고진순 (6층) 이정미
주차안내	안수집사 전원

## 기도제목

### ■ 연간 기도제목

1. 참사랑교회를 통하여 지역복음화를 위한 3천 제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2026년도는 '오직성경' 안에서 '참진리'를 발견하고, '오직복음'으로 '참치유'를 누리며, '오직예수'로 '참구원'을 증거하는 참사랑교회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2. 우리 총회를 통하여 민족복음화를 위한 40만 제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마르틴 루터, 존 칼빈의 개혁주의 신학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교리에 기반한 대한예수교장로회에 속해 있는 참사랑교회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고, 성경적인 신학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총회와 협회와 노회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3. 한국교회를 통하여 237나라 5천 종족,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할 1천만 제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 ■ 2026년 참사랑교회 '실천목표 기도문'

"2026년도도 참사랑교회 실천목표를 현장에서 실천하는 가운데 전도자, 제자, 증인의 응답을 앞당기게 하소서"

- (1) 주일강단메시지 성취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 (2) 복음요절을 암송하여 생명의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옵소서.
- (3) 성경 1독, 성경 쓰기에 도전하게 하옵소서.
- (4) "구원의 길", "십자가의 도" 그리기를 통하여 전도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 (5) 300영접, 30다락방, 3지교회를 통하여 성경적 전도운동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 (6) 5인 1조의 팀을 형성하여 전문교회 지교회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 (7) 나의 237나라와 나의 선교사를 찾아 선교의 비밀과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 (8)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 현장에 참사랑RUTC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 (9) 유튜브 10분 복음소식을 통하여 비대면 생명운동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 (10) 복음컨텐츠 제작을 통하여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이 구축되게 하옵소서.
- (11) 300전도캠프 현장이 지속적으로 열리게 하옵소서.  
(공원, 병원, 커피숍, 학교, 역, 직장, 쇼펍센터, 노인정 등)
- (12) 금토일시대에 사실적인 3가지 딸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 1) W.I.O 협동조합 (스마트팜, 인공지능, 로봇, 생명, 우주)
  - 2) 치유시스템 구축 (중독, 정신, 영, 건강)
  - 3) 예체능 협동조합 (스키, 체조, 탁구, 축구, 악기 등)
  - 4) 고령화시대준비 (100세 목상요가, 120세 모세건강법)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 5) 복음적인 교육복지 시스템이 모델적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 (13) 70나라 여행캠프를 통하여 세계선교의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 (14) 70나라에 병원, 약국, 목상 등 영혼, 정신, 육신 치유의 절대대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 (15) 참사랑전도학교, 참사랑집중전도신학원, 참사랑집중선교사훈련원, 참사랑핵심(주일)을 통하여 부흥의 응답을 주옵소서.

## 현당을 위한 헌신

<b>70인 요원 (24명)</b> /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 나의 새 이름을 그이 위에 기록하리라(계3:12)"
김경수-강승자-김대식 최정웅-전정하 유경형-리종화 주재진-권혜경 김경환-최복순 전인숙-김원일 김창희 임근일(양은숙) 신승훈(박영인) 박점순 정연규(이은숙) 김중복(한명희) 박지영
<b>300인 용사 (132명)</b> / "내가 ... 삼백 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 주리니(삿7:7)"
정운돈 최신영 양은숙 박영인 윤두연 강창숙 최봉식 최신주 박동영 최진희 오국환 이은희 조남은 이은옥 최영철 최후순 최명홍 이계옥 구지성 송영희 허경원 홍승희 박희순 이수용 이미자 유승범 주은경 이영순 박영재 양경심 강현자 김영길 박혜숙 김석재 손혜옥 여동훈 백소정 서정례 박철남 이상훈 서희석 나향남 이승재 심주환 김현숙 이홍근 김창희 송길호 최신혜 채용민 이효숙 오신자 정세완 박희영 정수환 최송화 박준민 황인선 주철우 정선희 권은희 민경환 이명재 구윤진 배형석 박인자 여상훈 노선희 김요셉 김해정 김남숙 정민호 이서은 최양호 오난희 장성순 박난순 김순자 김 현 임경미 박범서 김진아 김미선 최철규 현영희 장영호 여준식 김성열 김순호 배승찬 배명자 신옥희 김태운 이남현 오영숙 정향만 강요한 윤홍광 임혜연 박광현 박성혁 이신순 이희숙 왕진상 김선옥 김중남 김주영 김영진 변연숙 윤소현 김성순 김요한 백순덕 김금남 김복남 임영순 김옥천 김순이 서서원 박서진 이현주 최영애 김선희 강경현 장경희 유경선 정년영 양은옥 공영호 박봉기 박준식 이영희

## 지난주 하나님께 드린 예물

주일헌금	정운돈 최신영 최정용 전정아 박범사 김진아 심한걸 정지혜 이현규-김수진 전인숙 김원일 김정엽 유경형 리종화 주재진 권혜경 이수용 오국환 정연규 이은숙 여동훈 박동영-최진희 최명홍-이계옥 정세완 박희영 신승훈 박영인 김 현 김경희 배승찬 양경심 임근일 최철규 최신혜 이미지 김금남 유승범 주은경 김순호 김영진-최혜숙 이 명 이명재 구윤진 강현자 정년영 송영희 오신자 김계자 이정운 강공이 김희권 김나경 호민수 김영순 임영순 손병순 김순자 박인자 이순근 조성근-김갑래 최승화 김춘래 이영순 김계귀-장소녀 김용관-김정순 이은희 이상구-이정미 윤순옥 나경철-신현식 박숙자 유제숙 임소순 김정연 한영화 정민호-이서은 정예숙 홍명숙 이주형 도정호 박찬열 조현지 정수환 박주은 이이연 이민형 김지수 최일숙 송길호 임혜연 이효숙 최영국-김윤지 유승환-최이현 박희영 김소라 박난순 임경미 김승훈-김혜인 여 명 김영희 고진순 김이리 조재형 전주율 이민수-김숙희 한경숙 유영식 김태운 조부영 김지후-이현주 김창균-임예진 채송아 안선희 안도근 안나근 안예근 윤차현 방주은 정예진 배준서 무명15
십 일 조	김수진 유제숙 박진수 최철규-한영화 정민호-이서은 유충현-강공이 박난순 임예진 배준서 김경희 안경호 임혜미 정세완-박희영 김성재-윤태자 김순호 김영희 나경철-신현식 박동영-최진희 오이라 손혜옥
감사헌금	정운돈 최신영 최승화 김예경 김순호 유경심 양경심 박학규 김갑래 백승이 정민호-이서은 김일호 김태을 조재형 조연희 김지수 정수환 방주은 최신혜 김현진 박영인 김지후-이현주 이은숙 유경형-리종화 이계옥 박동영-최진희
심방헌금	지복순-임상식 임민재-지성순
차량헌금	박동영-최진희
일천번제	최신영
선교헌금	정운돈 박범사-김진아 임영순 이은희 김경희 안도근 정수환 방주은 조현지 김순호 김승훈-김혜인 유승범 주은경 박동영-최진희 박지영 오이라
선교사초청	정운돈 전인숙 박동영-최진희 김승훈-김혜인 채송아 임근일-양은숙 이정마-김금남 이수용-이미자 정연규-이은숙 유영식-박숙순 신승훈-박영인 최신혜 박숙자-김순자-홍명숙-오신자-최혜숙 유경형 유승범 이 명-배승찬 박인자 장소녀 임상식-김갑래 임영순-전 진 고진순-방주은 전정아-양은숙 정년영-송영희-김계자-강정자 주재진 김순호 최명홍-이계옥 최승화 유충현-강공이-유승호 정수환 김현상-이미희-김지영-김민영 박엽재 양경심 (*29차 선교사초청헌금 합계 25,000,000원)
스리랑카 치유센터	정수환 이이연 정민호-이서은 (*2026년도 합계 248,000원)
현당헌금	정운돈 최신영 전정아 이현규-김수진 김정엽 최철규-한영화 임영순 방주은 정수환 조현지 김승훈-김혜인 김순호 유승범 주은경 김태운 김이리 박동영-최진희 오이라 손혜옥
장학헌금	김원일-전인숙 방주은 정수환 김순호 김승훈-김혜인 유승범 주은경 박동영-최진희 김창균-임예진
어학연수	정수환
RUTC헌금	강공이 방주은 정수환 김영희 김승훈-김혜인 조부영 박동영-최진희 오이라
* 이름이 누락되신 분들은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2026. 4. 15. ~ 2026. 4. 22.)	

현당헌금 (2026년도 합계)	65,052,000원	차량 구입헌금 (2026년도 합계)	290,000원
참사랑 RUTC헌금 (2026년도 합계)	4,829,000원	어학연수헌금 (2026년도 합계)	1,315,000원

현당대출잔액 : 일본비화 452,000,000엔 (한화 4,294,000,000원 / 100엔환율=950원기준)	
일반헌금계좌 : 신한은행 100-013-769840	참사랑교회
현당헌금계좌 : 신한은행 100-022-072886	참사랑교회
선교헌금계좌 : 신한은행 100-033-576822	참사랑교회
장학헌금계좌 : 신한은행 100-033-576780	참사랑교회
참사랑 RUTC : 신한 100-035-010731	참사랑RUTC

## 2026년 구역조직

- 교구장 : 정운돈 목사

- 1교구(1~3지역) 담당교역자 : 박범서 목사 | 총무 : 이미자 장로

지역/ 전도인	구역 (담당장로)	구역장	권찰	구 역 원 ( * 밑줄은 미션 홈 이상 훈련수료자 )
1지역/ 최진희	①오금1 (오국환)	박인자	최진희	최정웅 전정아 <b>박동영 최진희</b> 박서운 박찬열 배형석 박인자 배영광 정우연 배고는 박접순 이신순 <u>최일숙</u> 조영희 장혁준 <b>최봉식</b> 최신주 최해나
	②오금2 (박동영)	김주영	주은경	정운돈 최신영 정예승 정예준 정예건 이재풍 김주영 이승현 이지훈 <b>유승범</b> 주은경 유현나 유현상 유준상 유민상 주종성 박학규
2지역/ 이미자	③방이1 (이수용)	양경아	유경선	<b>이수용 이미자</b> 이재은 <b>여준석</b> 양경아 여 명 여수아 정철호 유경선 이진수 정동주 정동훈 이은순A 김흥기 문길순 김갑례 임상식 지복순 박서이 박필수 박소현 박경구 박도경 박세연
	④방이2 (최철규)	홍미경	이미자	최재혁 홍미경 최옥현 <u>최도연</u> <b>백은지B</b> 윤소현A 윤대현 윤차현 박현우 김잠A 최종현 김명자 김성배 강길자 김운우
	⑤천호 (유경형)	리종화	홍경아	<b>유경형 리종화</b> 이대수 홍경아 이지오 이태이 홍형표 유승환 최아현 유나림 유하림 이영숙 박철남
3지역/ 김금남	⑥잠실 (이은숙)	조부영	김소라	조부영 양승현 양승우 황규칠 김소라 황다인 황세희 박광현 <b>조영주</b> 박근혜 박지혜 박지영 최보인 권순민 최형란 권유나 권유빈 이효숙 채송아 채정우 <b>전민식</b> 구순자 정재홍 전해진 정리아 조현지 오은사 권구현
	⑦송파 (임근일)	양은숙	박승숙	<b>김금남</b> 김수형B 김수민 <b>임근일</b> 양은숙 임혜연 유영석 박승숙 유세정 유진아
	⑧하남 (김경희)	김영희	한영화	이현규 김수진 이시은 <b>김경희A</b> 현백규 김현아 김영희 황혜주 강정자 <b>최철규</b> <b>한영화</b> 최종인 손병순 김준석 윤수연 조수영 홍주원 최영국 김윤지 최리오 심성지 심성하 유지열 송수민
서울 경기	②박범서 목사			장미선 김희서 김원준 김유진 문예은 최한나 최한별 권우현 정민진 김대욱 박유신 김혜원 김기채 고정호 고정협 스톱모 강지우 전영종 김유나 이재준 이시연 손완식 양은예 손보미 손재현 손보국 이정택 이은순B 이기원
	⑤심한결 목사			권세미 원철호 홍정아 강예은 강예림 김형준 <b>박현주</b> 김민규 최영희 김정남 김효경 권영숙 구성하 김수정 김성애 이아름 예 코 박준영 박준은 박지유 김미선 이혜승 이혜준 이현우 이은옥 조유연 조용연 이재운 민희선 김가원 김도원 <b>도상철</b> <b>채희은</b> 도성우 김경현 강소영 김유은B 김소는 <b>김석재</b> 김정길 박순연 박준민 황인선 박수진 박수정 이종관 서숙정 이주한 이지한
	⑥이현규 목사			윤지은 최명자B 고대중 박형진 류성미 박하늘 박하룬 안진성 문경화 안서윤 안채윤 안신영 신한수 이은주B 신민승 신연서 한경숙 변지영 박형석 강돌봉 박요셉 구황경 이선미 구아라 구지후 이기덕 김복란 이광훈 김명화 최민지 최민기 천 용 이유희 최지원 조현우 이채원 <b>이상훈</b> 노선희 여준후 여선후 박은선 <b>김준일</b> 최숙영 김하은 김유은A 김은성 송형자 정화영 한주아 한태민 <b>최영철</b> 최후순 최요한 최지는 최두영 오주희 최하랑 최하을 최하린 김혜수

※ 위 명단은 각 구역원과 기도대상자의 명단입니다.

## 2026년 구역조직

- 2교구(4~6지역) 담당교역자: 심한결 목사 | 총무: 양경심 장로 - 3교구(7~9지역) 담당교역자: 이현규 목사 | 총무: 최신혜 장로

지역/ 전도인	구역 (담당장로)	구역장	권찰	구 역 원 ( * 밑줄은 미션 홈 이상 훈련수료자 )
4지역/ 김계자	⑨오금3 (정세완)	박희영	임경미	정세완 박희영 김 현 임경미 김 수 김혜린 정연규 이은숙 김춘례 임수미
	⑩오금4 (주재진)	신혜선	권혜경	김계자 주재진 권혜경 주예진 신혜선 유연정 유지훈 임경순 양순옥 임선규 김태운 김금녀 이종남 김영순
	⑪오금5 (최명홍)	이계옥	최송화	최명홍 이계옥 최송화 정수환 정재환 전성배 박은서 김영중 김준영 김민성
5지역/ 양경심	⑫올림픽1 (김현)	장길순	이영순	유윤식 장길순 유효진 유윤재 이영순 박준석 설정화 박수환
	⑬올림픽2 (여동훈)	정년영	김정연	정년영 김정연 한공순 허경열 허지선 박성진 박서연
	⑭올림픽3 (양경심)	이현주	양경심	박염재 양경심 박주은 박주영 김수영A 이현주 김지후
6지역/ 김순호	⑮강남 (김순호)	손혜옥	임소순	김원일 전인숙 김구영 빌 마 김의찬 김주찬 안경호 김순호A 안도근 안나근 안예근 손혜옥 김주원 김혜원 임소순 천혜숙 강현자 김나경 김희경 김경애 이정민 조연희 조재형 조현근 고경훈 김일호 김두원 김세희 안선희 안민희 안현희 최영혁 김현진 박진수 윤성희 권혁복
	⑯구리 (유승범)	이정미	임영순	이상구 이정미 이진형 최가은 이민형 이주형 전진 임영순 임동영 장유진 이정수 장유선 이진우 김명철 장유미 김지유 전은정
7지역/ 이명	⑰오금6 (배승찬)	이명	임예진	박범서 김진아 배승찬 이 명 배준서 배현서 김창균 임예진 김하은A 김재승 윤순옥 구자성 송영희 이명재 구운진 이미화 김자영B 김민영 김근호 백순범 윤혜영 백소율 백하율 박환희 오상수 원태연 원아연 김희권 김승훈 김혜인
	⑱오금7 (이명)	최혜숙	홍명숙	김영진 최혜숙 김시연 김시아 최아영 홍명숙 손가을 손하늘 오신자 니콜라 박경아 라 나 아멜리 김순자 이병부 김경열 김운태 박숙자 도정호 유경순 도규철 이연균 도지민 김선희 김순호B 이 하 안지용 안수현
	⑲오금8 (여준석)	고진순	이선아	오국환 이은희 오유라 오아라 유계숙 고진순 방주은 정문철 이선아 정유호 정은유 김창대 이정임 김아리 김아영 위준승 문정민 김애경
8지역/ 최신혜	⑳문장 장지 (리종화)	최신혜	이가에	송길호 최신혜 송은수 송영민 송지수 신성원 이가에 신현옥 신지유 장영균 송미걸 장현규 장현우 장이준 장이서 장성순 박난순 장희영 장하은 민경환 권은희 나경철 신현식 니주희 니준홍 박진순 박주봉 박주승 장소녀 김지웅 김창호B 유정빈
	㉑가락 (정연규)	백소정	정선희	여동훈 백소정 여현지 여종원 여은성 주철우 정선희 주이서 주이준 주이연 이용도 최재경 이다연 이아연 정민호 이서은 노은현 손상현 이근제 이순근 이수산나 허가이 임혜미
9지역/ 박영인	㉒거여 마천 (최진희)	박영인	이순덕	신승훈 박영인 신동윤 이정윤 이순덕 이영경 호민수 정은숙 박지현 이 석 김재우 유충현 강공이 유승호 전주을
	㉓강동 (신승훈)	정향란	김숙희	심한결 정지혜 심주연 심지연 정향란 이민수 김수화A 이하연 이하준 김은영 차영민 차승민 장영호 소선미 함조식 소숙현 함재이 오인태 김자영B 오희립 오희우 김선옥 김지수 김성재 윤태자 정창호 김미현 정승주 정승우

# 하나님, 독생자, 그리스도

## -복음으로 여는 요한복음-

출애굽기 3:14, 요한복음 3:16

### 들어가는 말씀 : 인간의 지적 타락과 복음적 선택

1. 창세기 3장 이후의 인간 실상 지난 한 주간도 전 세계적으로 전쟁과 여러 어려움이 많았으나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이 예배의 자리에 모였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잊지 말아야 할 전제는 창세기 3장 사건 이후 인간의 본성이 완전히 부패했다는 사실이다. 인간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르며 나중심, 성공중심, 물질과 쾌락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 성경은 의인이 없으니 한 사람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선언한다. 종교개혁자들은 이를 '전적 타락(Total Depravity)'이라고 표현했다. 전적 타락이란 어떤 물건을 들 수 있는 아주 작은 흠조차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즉 인간 스스로는 선을 행하거나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자신이 조금이라도 선하거나 바르게 하려 한다는 생각 자체가 복음을 희미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2. 세상의 기준과 덜 나쁜 것의 선택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로 인간의 눈이 밝아졌으나 이는 곧 인간이 스스로 재판장이 되어 선악을 판단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의 눈으로 호세이의 아내 고멜과 같은 사람도 사랑하고 용서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먼저 자각 없는 사랑과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다. 곧 다가올 선거를 바라볼 때 도 지역주의나 이념에 얽매이지마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 '덜 나쁜' 사람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완벽하고 훌륭한 사람을 찾으려 한다면 투표장에 갈 수 없을 것이다. 모든 인간은 부족하기에 세상은 더 나쁜 것을 막기 위해 덜 나쁜 것을 선택하며 유지되는 측면이 있다. 이는 직장생활이나 가정,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현실적으로 장점보다 단점, 선보다 죄가 훨씬 더 많을 수 있다. 만약 타인의 단점과 죄악만 바라본다면 모든 인간관계를 끊고 전쟁을 벌여야 할 것이다. 분열시키고 죽이는 것은 사단이 원하는 살인자의 길이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이나 제사제도, 성막제도, 군사제도를 주신 것도 인간이 더 큰 죄로 망하지 않도록 허용하신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 같다.

3. 작은 실천과 영적인 도전 인간 스스로는 완벽하진 선을 행할 힘이 없었지만 작은 사랑과 작은 인내는 실천할 수 있다. 큰 고통은 참지 못해도 조금은 참을 수 있다. 건강을 위해 운동하고 음식을 관리하며 호흡하는 것이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실천해야 하는 것과 같다. 이를 게을리 하면 몸이 더 망가지고 곧 질병이 찾아오는 것처럼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이다. 예배드리고 말씀을 읽는 것이 귀찮고 쉬엄 쉬엄 때가 있겠지만 신앙과 전도 선교에 계속 도전해야 한다. 불편함을 무릅쓰고 도전할 때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이 있다. 영적인 도전을 멈추면 그 자리에 사탄의 역사가 침투해야 한다.

4. 생명의 : 기도와 호흡 인생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생명선은 기도와 호흡이다.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며 '예수는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호흡기도를 권장한다. 예배 중에 깊은 호흡에 집중하면 졸음을 예방하고 영적인 집중력을 회복할 수 있다. 자신의 수준에 맞게 70~80%의 호흡량으로 꾸준히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20년 전 한 방송인이 한 시로부터 스트레칭과 호흡이 평생 건강의 비결이라는 조언을 들었으나 실천하지 않아 현재 온몸에 통증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 우리 영혼을 변화시키고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같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작은 실천을 꾸준히 해야 한다. 우리 마음에는 조상으로부터 온 악한 본성이 계속해서 떠오르기 때문에 이를 이길 수 있도록 목욕적 인 말씀을 쉬지 않고 묵상해야 한다.

5. 하나님께 질문하며 인도받는 신앙 큰 어선을 운영하는 어는 선장님의 일화이다. 파도가 심하게 치던 날, 평소 가던 항로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배를 물리라는 선장님의 지시에 선원들은 모두 당황했다. 선원들은 위험하며 거세게 반대했지만 선장님의 고집으로 배를 진행시킨 결과 그곳에서 파선당한 배를 발견하게 되었다. 비록 절반은 목숨을 잃었으나 표류하던 14명을 무사히 구출할 수 있었다. 이후 사람들이 그 훌륭한 결단에 대해 묻자, 선장님은 자신이 그리스도 인임을 밝히며 "저는 평소 하나님께 '오늘은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리고 도울까요?'라고 질문합니다"라고 답했다. 그날 역시 하나님께 묻는 과정에서 마음속에 '우리 세밀한 음성을 따라 배를 움직이기에 사람을 살릴 수 있었다는 간증이다. 많은 성도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판단대로 살아가다. 그러다보니 성령의 인도와 말씀의 성취,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한다. 우리 인내는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영적인 문제와 악한 성향이 90%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재앙과 저주의 뿌리는 어느 날 갑자기 드러나 인생을 흔들어 놓는다.

6. 영적 기개도, 영적 유산 지나주 교회 핵심요원모임에서 기개도를 그려보는 시간을 가졌다. 어떤 집안은 자살이나 도박의 내력이 있고, 어떤 집안은 정신병이나 인과 같은 질병이 대대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는 육신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적이 부분에서도 체질화되어 흐르는 것이다. 그러나 복음적인 눈은 타인의 단점이나 저주받을 보는 것이 아니다. 어느 한 랍스터에게 가문으로부터 전달된 좋은 것을 무엇이라고 물어봤다. "흔들리지 않는 것" 어머니도 흔들리지 않고 그 할머니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는 것을 들었다. 그렇다. 좋은 유산이다. 상대방의 부족한 점만 본다면 인간관계는 끊어지고 보기 싫어지고 듣기 싫어진다. 복음은 상대방이 가진 1%의 좋은 점을 찾아 그것을 300배 키워주는 것이다. 영애할 때는 모든 것이 좋게 보이기 때문에 결혼 후 나쁜 점만 부각되는 이유는 좋은 점을 방치했기 때문이다. 절을 때는 버틸 수 있다. 그러나 방치해두면 결국 살기 싫어지는 부분까지 가게 된다. 조상으로부터 받은 좋은 영적 유산을 발견하고 감사하며 키워 나갈 때, 가문과 개인을 더럽힌 재앙을 막을 수 있다. 인악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기도로 채워 나갈 때, 하나님의 어머니와 역사와 축복이 시작된다. 성도들이 삶 속에서 응답이 없거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느끼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 주신 가장 중요한 말씀을 놓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핵심적인 인내는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고 선포하신 사실이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며 여호와라는 이 선언이 우리의 영혼에 각인되고 뿌리내려 체질이 되어야 한다. 이는 온전히 믿지 못하고 지식적으로만 알거나 적당히 믿으면 미래가 보이지 않고 삶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며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없게 된다. 신앙생활의 목적이 반드시 부자가 되거나 건강해지는 것 자체에 국한되어서는 안된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풍부에 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치할 줄도 아는 영적인 비밀을 소유해야 한다. 수심 억척리 집이나 좋은 차를 누릴 때 교만하지 않아야 하며, 반대로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에 처할지라도 그

상황에 놀리지 않아야 한다. 우리의 기쁨은 세상의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있어야 한다. 하나님이 주시면 누리되, 주시지 않아도 후회되지 않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 건강할 때 자랑하지 않고 몸이 약할 때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진중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이시기 때문이다.

7. 고난을 대하는 사명자의 그릇 하나님은 큰 그릇에게 큰 문제를 주신다. 정치지도자들 역시 여러 차례의 낙선과 고통을 이겨낸 이들이 큰 지도자로 성장하는 것을 보았다.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과 아픔이 크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굉장한 계획이 있다는 증거이다. 나이나 형편은 중요하지 않다. 80세에 부름을 받은 모세처럼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치 있는 깨달음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진리를 깨닫지 못한 채 세상을 움직였던 석가모니와 달리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참된 진리를 가졌기에 조금만 기도해도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다.

**서론 : 스스로 있는 자, 성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무상기록**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도망자로 살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묻자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고 말씀하셨다. 이는 히브리어로 '야와'에서 유래한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으로, 외부에 의해 창조된 존재가 아닌 자존하시는 분임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조차 창조하신 분이다. 태초 이전에 무엇이 있었느냐는 질문은 무의미하다. 하나님은 시간의 시작과 우주만물의 근원을 창조하셨으며, 성삼위 하나님으로서 예수님 또한 창조하신 순위에 함께 하셨다. 시간의 흐름(과거, 현재, 미래)과 공간의 차원까지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우주만물을 한 순간에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진중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이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이시다. 천능하신 창조주가 함께하시는데 무엇을 염려하겠는가? 부모와 함께 있는 어린이가 먹을 것과 탈 것을 걱정한다면 그것은 부모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이유를 갖고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신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기록하는 습관이다. 운동선수가 오랜 시간 훈련일지를 쓰며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여 금메달을 따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 단순히 숙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의미를 알고 기록해야 한다. "예수는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진리가 우리의 영혼과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려지길 축원한다.

**1.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과 그리스도의 삼중지**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 이름을 믿어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동생자이시며 동시에 그리스도이시다. 많은 이들이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리스도'의 참된 의미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으로,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의미한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굳이 이 삼중지의 직분으로 오신 이유는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인 사단 죄,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예수님은 참 왕으로서 사단의 권세를 꺾으셨고, 참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으며, 참 선지자로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다.

**2. 지식을 넘어서 사랑과 용서의 복음**

복음의 핵심은 지식적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친히 십자가에서 희생하셨다. 우리가 이 복음을 진정으로 깨달았다면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서지 말아야 한다. 예수님처럼 지식을 희생하여 사랑을 살리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인간의 역사 속에는 복음의 본질을 놓치고 종교와 교리의 이름으로 서로를 죽였던 비극이 많았다. 가톨릭과 개신교 사이의 갈등, 루터파와 칼빈파의 대립 등이 그러하다. 프랑스의 개혁주의자들인 유크노들이 수없이 박해당하고, 칼빈이 제네바까지 도망가서 종교개혁을 해야 했던 역사는 복음의 절제된 진실을 때려내려는 비극을 보여준다. 반면 성경 속 다니엘이나 사드라, 메사, 아베크고와 같은 인물들은 단단다. 그들은 적국에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폭력을 행하거나 이념싸움을 하지 않았다. 오직 전문성과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왕들을 감동시켰으며, 적국을 돕는 나라로 바꾸어 진정한 평화(shalom)를 이루었다. 우리도 교리나 종교싸움에 빠지지 말고 오직 화평을 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되야 한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라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어머니마찬가지로 존재이심에도 불구하고,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위하여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임마누엘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하시기에 우리는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시시때때로 우리의 삶에 응답하시며 평안을 주신다. 때로는 사람 사이의 관계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면 그 어떤 것도 인생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지나온 삶의 모든 과정 즉 공부하고 대화에 가는 모든 순간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듯이, 우리의 미래 또한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책임지고 이끌어 가실 것이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은 삶 속에서 실제로 누리야 한다. 우리의 신앙은 죽어있는 종교나 딱딱한 교리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지금 나와 함께하시며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한다. 신앙의 참된 시작은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즉 스스로 존재하는 자로 온전히 믿고 고백하는데 있다.

**3. 예수의 신성 증거 : 7가지 기적과 표적**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해 일곱 가지 대표적인 기적을 기록하고 있다.

- 1) 요한복음 2:1-11 :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창조주로서의 본질적 변화)
- 2) 요한복음 4:46-54 : 왕의 신하의 아들을 왕적으로 고치심(시공간을 초월한 능력)
- 3) 요한복음 5:1-9 : 38년 된 환자를 치료하심(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지능)

이 기적들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본질을 가진 창조주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표적이다.

- 4) 요한복음 6:1-15 :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심(만물의 주권자)
- 5) 요한복음 6:16-21 : 물 위를 걸으심(자연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권)
- 6) 요한복음 9:1-41 :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심(창조적 회복)
- 7) 요한복음 11:1-44 :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생명의 주권자)

육신의 병이 낫고 눈을 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눈을 떠서 복음과 진리를 보는 것이다. 마귀에게 속아 정신적인 문제에 시달리고 세상의 헛된 것을 쫓다가 저주받은 인생이 되지 말아야 한다. 성령충만을 받아 참된 길을 발견하

길 축원한다. 영적인 눈이 어두운 상태에서 열심만 내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복음의 결론이 나지 않은 채 인생을 살아 가면 결국 큰 사고를 내거나 영적인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먼저 영적인 눈을 뜨길 축원한다. 복음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많은 사람이 복음을 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모르는 경우가 많다. 평소에는 복음을 말하다가도 정작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나 갈등이 닥치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오만적 기운이나 고집, 그리고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영적인 문제들이 먼저 터져 나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위기가 올수록 복음이 아닌 자신의 종교적 체질이 먼저 반응하는 것이다. 자신이 가장 옳고 타인은 모두 틀렸다고 생각하는 교만은 복음과 정반대되는 모습이다. 영혼을 살리고 진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본질적인 사명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판단하고 비판하는 데에만 익숙해져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고질적인 체질이다. 복음적인 선한 일은 모두서 행하지 않으려 하는 것이 우리의 실상이다. 하루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아니 1년에 단 한 번이라도 복음 안에서 똑바른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받는다면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4. '에고 에이미(Ego Eimi)'와 '하야(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의 선언**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스스로를 계시하시는 일곱 번의 '에고 에이미(나는 ~이다)' 표현이 등장한다. ① "나는 생명의 떡이다", ② "나는 세상의 빛이다", ③ "나는 양의 목자이다", ④ "나는 선한 목자이다", 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⑥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⑦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이는 구약의 '하야(Hayah,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와 같은 의미로 예수님이 곧 하나님임을 선포하는 것이다. 제자 도마는 매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성격이었다.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인간적인 배경을 알았기에 속으로 의심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여주자 그의 모든 의심은 무너졌다. 그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지이다"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을 성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도마의 이 고백은 그가 과거에 보았던 예수님의 모든 기적(오병이어, 포도주 기적 등)이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었음을 뒤늦게 깨달은 결과였다. 역사적 증언에 따르면 이후 도마는 인도까지 건너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며 순교했다. 그가 전한 복음의 영향력은 오늘날 인도신학과 기독교 역사 속에 깊이 남아있다. 의심 많던 도마가 고백했듯이, 여러분은 '에고 에이미', 즉 '하야'하시는 스스로 계시는 지이자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그분이 곧 여러분의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을 통해 온전히 신뢰하시라 한다. 우리의 무의식과 잠재의식 속에 "예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이 각인되고 뿌리내려야 한다. 이를 온전히 믿지 못하면 위기가 올 때 자신의 방법과 영적인 문제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증독(마약, 알콜 등)에 의존하는 것은 아직 그리스도로 인생의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느 순간 내가 복음으로 거듭나면 그러한 세상적인 집착은 더 이상 필요 없게 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실 때, 우리는 무식, 절소, 우상숭배와 같은 모든 저주와 운명, 사주팔자에서 영원히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된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모든 재앙을 막으시는 유일한 길임을 믿어야 한다. 성도들이 가진 오래된 기질이나 성격은 본인의 잘못 이라기보다 아주 오래 전부터 기원을 통해 내려온 영적인 유산이다. 여러분 또한 이러한 영적 대물림으로 인해 손해를 보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겪고 있는 정신적인 문제나 영적인 문제, 그리고 자신도 원치 않는 좋지 않은 모습들을 결코 여러분 개인만의 잘못이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태를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 바로 이러한 근본적인 영적 결함과 운명을 해결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5. 요한복음에 나타난 구원의 핵심요점**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 우리 가문에 흐르는 영적 유산과 개인의 성격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는 것뿐이다. 사단의 생각은 쉼 새 없이 우리 안으로 침투한다. 무릎으로 사신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보면 사단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준다고 기록되어 있다. 우리가 읽는 성경의 활자 자체가 대안해 보이지 않을 수 있으나 그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된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사단은 역사하지 못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진다. 복음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중요한 이유는 나를 빼앗으려는 사단의 시간을 줄이고 승리의 시간을 늘리기 위함이다.

- 1) 창조주 하나님인 말씀(요한복음:1-3, 12)
  - (1) 태초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말씀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단순한 성인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마음에 영접하시길 바란다.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줄 믿길 바란다.
  - (2) 영접과 자녀의 권세 :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약속한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는 순간 세상이 달라 보이며 체계를 하게 된다. 흑암 속에 있던 인생에 빛이 들어감에 귀신이 떠나고 악몽이 사라지며 삶이 완전히 변화된다.
  - (3) 거듭남과 하나님의 나라 - 속사람 변화, 회개케 하는 자(요한복음:3, 16) :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만 내 안과 환경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일반 인간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지옥 같은 환경을 만든다.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 외부의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마귀가 심어놓은 악한 것들이다. 속사람이 변화되어야 살인과 상치, 이쁨을 주는 인생에서 벗어나 수 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지도자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의 비밀을 알려주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라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영접할 때 거듭남이 시작되며,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현장을 살리는 제자로 변화된다. 지옥 같은 고통과 정신병, 육신의 정욕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방향을 수정해야 한다. 진정한 복음은 교리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다. 종교개혁사 속에서 예전종교나 삼위일체, 교파의 정통성을 두고 수많은 갈등이 있었으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믿음은 사랑이다. 진리와 교리 속에서 하나님이 진정한 뜻과 사랑을 발간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옳고 남이 틀렸다는 정죄는 다름을 낳을 뿐이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으며 하나님의 아들과 일립음을 받는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는 것이 진짜 복음이다.
  - (4) 사명에서 생명으로(요한복음:5:24, 14:6)
    - (1) 완료된 구원 : 요한복음 5장 24절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라고 선포한다. 이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확정된 축복이다. 우리는 구원받았고 지옥에 가지 않는다.

(2) 유일한 길 :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영생의 길일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학업, 경제, 갈등 등 모든 문제의 유일한 답이 되신다. 이 길을 찾길 바란다. 창조주 하나님을 진정으로 내 인생의 주인과 왕, 그리고 황제로 모실 때 모든 문이 열린다.

4) 기도응답의 권세(요한복음14:14, 16:24) 성도는 기도응답을 받을 신분과 권세를 가졌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께서 시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당장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해답을 주시거나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끈질기게 간구했던 과부의 비유처럼 계속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우리를 완벽한 축복으로 인도하신다.

**6. 영적 싸움 - 사단의 체제와 말씀의 권(요한복음8:44)**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 사단의 체제를 정확히 폭로하고 있다. 기독교 안에서 왜 갈등이 일어나고 모회화나 장로들 사이에 왜 분쟁이 생기는지, 가톨릭과 개신교가 왜 부딪히는지 그 근본이유를 알아야 한다. 사단은 어마어마한 힘으로 우리를 도전하고 망치려 한다. 이 영적 사투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사단을 무시하거나 대충 생각하다가는 반드시 영적인 공격을 당하게 된다. 사단은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자를 놓치지 않고 이용하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8장 44절은 "너희는 너희 아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고 말한다. 창세기 3장 사건 이후 인간의 영적 배려는 마귀가 되었다. 우리가 복음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고 거만히 있으면 우리의 체질은 자연스럽게 마귀의 DNA를 따라 욕심과 감정대로 살아가게 된다. 사단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이다. 정경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 자체가 살인이라고 말한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정죄하며 사람을 살리는 대신 죽이는 쪽으로 행동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여전히 사단이 심어놓은 각인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주된 무기는 거짓이다. 사단은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신이다. 진리가 없는 인생은 살의 모든 부분이 거짓으로 점철될 수밖에 없다. 세상이 온갖 사기와 정교한 거짓이 판을 친다. 이토록 거짓된 인생을 사는 이유는 복음의 빛을 모르고 생명의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먹고 사는 문제가 전부인 인생은 거짓의 이비인 마귀에게 속아 거짓말을 하며 살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런 유혹과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7. 마지막 미션과 전달자의 사명(요한복음21:15-17)**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마지막 미션을 주셨다.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며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는 말씀을 거듭 강조하셨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조건 없는 사랑인 '아기애(Agape)'를 물으셨으나, 베드로는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에 친구 간의 사랑인 '필레오(Phileo)' 수준으로 밖에 대답할 수 없었다. 하지만 주님은 베드로의 부족함을 아시면서도 그에게 사명을 맡기셨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부족하고 온전하지 못하며 사랑과 믿음도 내세울 것이 없다. 그러나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전도와 복음전파의 일을 하라고 말씀하신다.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를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실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개인이 자각이 훌륭해서가 아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기에 가능한 일이다. 이는 마치 왕의 편지를 들고 가는 전달자와 같다. 전달자가 얼마나 훌륭하고 지식이 많은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저 왕의 뜻이 담긴 편지를 정확히 전달하기만 하면 된다. 우리는 그저 복음을 전달하는 전달자일 뿐이며, 주님은 우리에게 그에 걸맞은 신분과 권세를 이미 주셨다.

**결론**  
이 복음, 즉 진정된 주님의 본심이 담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해야 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내용을 정확히 전달하여 세계를 살리고 모든 현장을 살리는 서밋(Summit)이 되는 여러분이 되길 축원한다.

**참사랑 RUTC현황 (예제능체임교실)**

	시간 & 장소	담당자		시간 & 장소	담당자
여행캠프	모집 시	정창호 집사	서예교실	한달 토 10:00, 2층 식당	모집 중
트릭키체조교실	당분간 운영중지	정수환 집사	스키&스노보드	동계	박찬열 집사
탁구교실	매주 토 11:50, 2층	최혜숙 권사	수목캘리그래피	1, 3주 토 19:00 2층 식당	김순호 장로
기타클래스	매주 토 14, 17, 19시 4층 당회실	이명 장로	축구&풋살	한달 토 오후	김승훈 집사
트리니티찬양교실	1, 3주 수 14:30 3층 제2랩넌트실	임예진 권사	취미그림교실	1, 3주 토 17:30 2층 식당	김순호 장로
복음영어클래스	매주 토 15:30, 주일 19시 1층 어린이부실	주은경 권사	드럼클래스	매주 토 18, 19, 20시 5층 분당, 1층 비전홀	김승훈 집사
피아노&기초음악이론	개인별 레슨 진행 4층 찬양대실	이석 집사	WIO스마트팜	비정기적 열린 포럼 진행	

## 교회를 섬기는 아들

담임목사	정윤돈 010-8033-5678	부목사	심한결 010-8206-2024	합동전도사	전인숙 010-8881-5222
원로목사	최정용 010-5260-5511		이현규 010-9736-3556	사무간사	박난순 010-9930-5558
부목사	박범서 010-6335-3719	목사(전도팀)	김양순 010-8328-0132		
전도인	최진희 이미지 김급남 김계자 양경심 김순호 이명 최신혜 박영인				
장로	(시무) 유경형 주재진 이수용 오국환 정연규 여동훈 박동영 최명홍 정세완 신승훈 라종화 김현 여준석 김경희 배승찬 양경심 임근일 최칠규 이은숙 최신혜 이미지 김급남 최진희 박영인 유승범 김순호A 이명 김영진 (협동) 이군재 전민식 장공이 (해외) 최봉식 (은퇴) 이명재 강현자 정년영 송영희 오신자 (명예) 박철남 김계자 이정운				
찬양대	(지휘) 고경훈 (오르간) 이서은 임예진 (피아노) 최신영 최승화 이석 (비올라) 채송아				

## 예배 및 모임 안내

예배			교회학교		
구분	시간	장소	구분	시간	장소
주일예배	1부 오전 8:30	5층, 6층 참사랑홀	태영아부	주일 오후 2:00	3층 제1랩넌트실
	2부 오전 11:00		유치부	주일 오전 11:00	3층 제2랩넌트실
	오후 2:00	1층, 3층, 5층 (부서별 예배)	어린이부	주일 오후 2:00	1층 비전홀
	오후 3:30		중고등부	주일 오후 2:00	5층 참사랑홀
수요기도회	수 오전 10:30	1층 비전홀	대학청년부	주일 오후 3:30	5층 참사랑홀
금요심야기도회	수 오후 7:30				
세벽기도회	금 오후 8:00	영상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5:30				
자체훈련			세계복음화전도협회훈련		
구분	시간	장소	구분	시간	장소
새가족훈련	주일 오전 10:20	4층 당회실	산업선교	토 오전 9:00	1층 비전홀
복음소식	주일 오후 12:30	3층 주간보호센터	전도학	토 오전 9:40	
태영아공동육아	수 오전 11:30	3층 제1랩넌트실	핵심요원훈련	토 오전 10:30	
어린이사명자	주일 오후 1:00	3층 제2랩넌트실	중직자대학원	주일 오후 5:00	
중고기도회	주일 오후 1:40	5층 참사랑홀	초등전도신학원	토 오후 2:00	
집중전도신학원	수시	참사랑교회	청소년전도신학원	토 오후 2:00	

## 국내외선교지

### 선교사파송 100명(협력 및 후원기관)

- ① 심주환선교사(일본 히로시마) ② 배교은선교사(네덜란드) ③ 이종우선교사(일본) ④ 이창국선교사(러시아)  
 ⑤ 황규영선교사(네팔) ⑥ 임호성목사(서울역 노숙자학교) ⑦ 왕선교사(RTS C107) ⑧ 정화권선교사(필리핀신학교)  
 ⑨ 김동길선교사(케냐) ⑩ 서해영선교사(카자흐스탄) ⑪ 문철선교사(팔라완) ⑫ 벤자민목사(인도)  
 ⑬ 서진태선교사(스리랑카)

### 군파송자

[육군] 송영민 나중훈

### 해외파송자 (26)

[미국] 최형란-권순민(권유나 권유빈) 김국한 박석훈 최봉식-최신주(최해나) 강지우 이진형-최가은 정예준  
 [호주] 박영준-김수미(박윤성 박민성) 박영환 [영국] 박경아-니콜라(라나 아멜리) [네덜란드] 배교은  
 [일본] 오유라 [인도네시아] 전민식 구순자

## 교회 역사

### 오금동과 함께 성장한 교회 |

1960년대 후반, 정부는 서울 전역의 판자촌을 정리하는 정착지 조성 이주사업을 계획했습니다. 이에 따라 판자촌 주민들은 청소차에 실려, 허허벌판이었던 오금동에 버려졌습니다. 한 가구에 주어진 여섯 평의 땅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이었습니다.

가난과 고통 속에 살던 이 정착민들을 안타깝게 바라보던 남대문교회의 김근숙 권사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군용 천막 하나를 빌리고, 직접 복을 치며 사람들을 불러모았습니다. 이것이 오금동에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인 오금중앙교회, 지금의 참사랑교회입니다. 대머리산에 세워진 조그마한 오금중앙교회 성전은, 마을 아이들 이 뛰어놀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1980년 부임한 최정웅 목사와 함께, 이렇게 지역 사회 속에서 성장해 온 오금중앙교회는, 세계복음회를 마음에 품고 2005년에 참사랑교회로 이름을 변경했으며, 2007년에는 현재의 자리에 세 번째 성전을 지어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참된 해답, 참된 사랑인 복음을 굳게 붙잡고, 이 복음만을 말하는 복음 공동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참사랑교회는, 2018년 최정웅 목사를 원로목사로 추대하고, 정윤돈 목사를 담임목사로 위임하여 새로운 도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참사랑교회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 가입된 건강한 교회이며, 58년 동안 지역 사회와 함께 호흡하며 자리온 토박이 교회입니다.



## 교회 소개

###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교회 |

참사랑교회는 종교다원주의를 반대하며, 오직 복음만이 온 세상의 해답임을 믿는 교회입니다.

### 후대운동으로 후대를 살리는 교회 |

많은 후대들이 학교와 현장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희망은 그들에게 있습니다. 참사랑교회는 후대를 살리고 인재를 키우는 것을 첫째의 우선순위로 삼고, 지역 인재 장학사업, 방과 후 활동 및 상담활동 지원과 같은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선교로 세계를 살리는 교회 |

선교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류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선교를 위해 세워진 참사랑교회는 창립 이후 계속해서 낙도 선교와 남아시아 선교를 후원해 왔으며, 현재는 일본 히로시마와 아프리카 남수단, 몽골 울란바토르, 필리핀 마닐라, C국 S지역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 복지로 현장을 살리는 교회 |

병들고 소외된 이들의 벗이 되셨던 주님을 본받아, 참사랑교회는 지역 사회와 어려운 이웃을 섬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및 송파구와 협력하여 참사랑 장애인주간보호센터와 행복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참사랑노인데이케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법인 램넳트 및 사회복지선교국과 협력하여 지역을 섬기고 있습니다.